



제니스가 리럭서리 살롱에서 선보이는 1970년대 엘 프리메로 크로노그래프를 탑재한 “ZENITH ICONS: ACT II” 컬렉션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초의 중고 빈티지 럭셔리 상품 및 수집품 무역 박람회인 리럭서리(RE-Luxury)에서 제니스가 정품 빈티지 시계 큐레이션 프로그램 **ICONS: ACT II** 를 공개하며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는 **HORIZ-ON** 이니셔티브를 이어갑니다. 럭셔리 분야의 순환 경제를 지향하며 상징적인 레퍼런스에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하는 리럭서리는 단연 **ZENITH ICONS: ACT II** 캡슐 컬렉션을 선보일 이상적인 플랫폼입니다. 수집가들은 1970년대 특유의 디자인과 엘 프리메로에 포함된 추가 기능을 엿볼 수 있는 이번 캡슐 컬렉션을 통해 제니스 매뉴팩처 역사상 종종 간과되기도 했으나, 가장 역동적이고 대담했던 시기로 손꼽히는 우주 시대의 타임피스를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니스가 독보적인 유산, 그리고 제니스 시계가 워치메이킹 분야 전반에 미쳤던 영향을 조명하며 역사에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전 세계의 안목 있는 수집가를 사로잡을 타임피스를 선보입니다. 2020년 첫선을 보인 ZENITH ICONS 프로그램은 1960년대 및 1970년대를 빛낸 제니스의 상징적인 레퍼런스로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진귀한 타임피스를 만날 기회를 선사했습니다.

제니스 오프라인 및 온라인 부티크에서만 만날 수 있는 캡슐 컬렉션 형태로 출시된 ZENITH ICONS 타임피스 라인은 매뉴팩처 헤리티지 부서에서 수주, 복원 및 인증을 거친 모델로 구성되었습니다. 헤리티지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제작된 제니스 시계의 이력 전체를 추적하며 모든 부품이 100% 정품임을 보증합니다. 이는 종종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쉽게 접근하기 힘든 빈티지 시계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수집가들을 안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제네바 프레지던트 윌슨 호텔에서 개최되는 리럭서리는 30여 곳의 스위스 및 글로벌 브랜드와 참가자가 함께 하며, 업계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제니스는 이처럼 혁신적인 박람회를 통해 최초로 매뉴팩처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부티크 외의 장소에서 ZENITH ICONS 타임피스를 만나볼 기회를 선사합니다. 이를 통해 제니스는 열정적인 빈티지 시계 수집가들과 소통하고, ZENITH ICONS 프로그램을 비롯해 정품 인증 빈티지 시계를 제공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매뉴팩처만의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리럭서리 박람회에서 최신 ICONS 컬렉션을 선보이는 이번 기회에 관해 제니스 CEO 줄리앙 토나레(Julien Tornare)는 다음과 같이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계식 시계는 오래도록 착용하면서 영원히 그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진귀한 오브제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관리와 유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ZENITH ICONS 컬렉션은 여러 세대를 거쳐 가보로 계승되는 액세서리의 의미를 뛰어넘어, 제니스가 전 세계의 열정적이고 안목 있는 수집가들에게 선사하는 유서 깊은 타임피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빈티지 및 중고 럭셔리 제품에 대한 새로운 컨셉을 제시하는 리럭서리는 제니스의 대담하고 실험적인 디자인을 엿볼 수 있는 1970년대의 인기 제품으로 구성된 최신 ICONS 캡슐 컬렉션을 선보일 완벽한 공간입니다.”*

ZENITH ICONS: ACT II - 레트로 퓨처로 돌아가다



1969년 이후의 상징적인 초기 엘 프리메로 모델을 선보였던 ZENITH ICONS 에 이어, 새롭게 선보이는 ICONS: ACT II 는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위대한 칼리버의 두 번째 시대를 탐구합니다.

새롭게 향한 시대는 바로 1970년대 초반입니다. 인류가 달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뎠던 그 시기, 미래는 새롭고 흥미로운 잠재력으로 가득했습니다. 우주는 더 이상 인류를 가로막는 한계가 아니었으며, 중력 역시 인류의 발을 묶는 제한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저렴한 쿼츠 시계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기계식 워치메이킹 분야가 존폐의 위기를 겪었던 기간이기도 합니다. 제니스 팀에서는 이 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엘 프리메로가 탑재되었던 초기 레퍼런스는 슬림한 비율과 우아한 미학에 집중했으나, 그 다음 세대는 기존의 관습에서 탈피해 완전히 새로운 형태를 제시함과 동시에 세계 최초의 오토매틱 고진동 크로노그래프 칼리버에 색다른 기능을 더한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A782

A781 및 A783 과 함께 제니스 엘 프리메로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2 세대의 문을 열었던 A782 는 1970년대의 우주 시대 디자인을 오롯이 구현하며 중력의 영향에서 벗어난 인류와 워치메이킹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엘 프리메로 고진동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칼리버는 최초로 DEFY 라인의 견고한 디자인 내에 자리 잡았고, 바디에 탑재된 엘 프리메로는 “뛰어난 기술이 보증하는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단 1000 피스로만 만나볼 수 있었던 A782 구성은 블루 그라데이션 다이얼과 스트라이프 디테일의 아워 마커, 미러 폴리싱 처리된 플랜지 링, 고정 배럴형 스틸 케이스, 14 개의 각면을 갖춘 베젤과 스크류-다운 크라운, 케이스 가장자리를 따라 이어지는 명성 높은 게 프레르(Gay Frères) 일체형 스틸 “랍스터” 브레이슬릿을 갖춘 디자인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A788

A787 및 G787 에도 장착된 새롭고 독특한 케이스를 결합한 제니스 엘 프리메로 2 세대 크로노그래프 시계 A788 은 마치 중력을 벗어난 듯 스틸 케이스가 부풀어 오른 디자인으로 1970년대를 정의했던 우주 시대의 미학을 구현합니다.

미래지향적인 매력이 두드러지는 A788 은 전체에 브러싱 처리한 육각형 쿠션형 케이스, 매끈한 라인과 겹으로 드러나지 않는 러그, 갈바닉 처리한 블루 다이얼과 대비를 이루는 실버 크로노그래프 카운터 및 크로노그래프 세컨드 트랙, 그리고 기존의 타키미터 스케일 대신 펄소미터 스케일을 장착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A7817 "ESPADA"



2 세대 제니스 엘 프리메로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에 더욱 자유로운 감성을 더하는 A7817 은 제니스의 특별한 칼리버에 처음으로 컴플리트 캘린더와 문페이스를 탑재한 “ESPADA” 라인 최초의 공식 모델입니다.

엘 프리메로의 고진동 성능과 제니스의 뛰어난 기술이 보증하는 “정확한 시간”을 선사하는 DEFY 라인의 견고한 구성을 결합한 A7817 은 고정된 배럴형 스틸 케이스와 14 개의 각면으로 완성된 베젤 및 스크류-다운 크라운을 갖추고 있으며, 실버 다이얼에는 시그니처 갈바닉 블루 카운터, 타키미터 스케일, 스트라이프 디테일의 아워 마커와 함께 문페이스와 풀 캘린더가 탑재되었고, 이와 함께 2 세대 일체형 스틸 “랩스터” 브레이슬릿이 제공됩니다.

01.0140.415

진귀한 2 세대 제니스 엘 프리메로 시계로 손꼽히는 01.0140.415 는 단 한 차례, 500 피스로 한정 제작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급진적인 요소로 손꼽혔던, 타키미터 스케일이 탑재된 블루 갈바닉 고정 베젤과 함께 더욱 풍성해진 볼륨감과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형태로 우주 시대의 감성이 담긴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시계의 특징적인 디테일로 손꼽히는 고정 배럴형 스틸 케이스는 타키미터 스케일이 탑재된 블루 갈바닉 고정 베젤, 브러싱 처리된 풍성한 갈바닉 블루 다이얼, 새로운 스타일의 야광 배턴 아워 마커, 그리고 2 세대 일체형 스틸 “랩스터” 브레이슬릿과 조화를 이룹니다.

01.0200.415 “TV Screen / Big Blue”

제니스 엘 프리메로 2 세대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TV Screen” ref. 01.0200.415 는 당시의 텔레비전에서 영감을 받은 독보적인 룩으로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은 케이스, 다이얼, 특허받은 푸셔 디자인 속에 우주 시대의 감성과 1970 년대 특유의 미학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빈티지 엘 프리메로 스틸 크로노그래프 중에서도 특히 독보적인 레퍼런스로 손꼽히는 ref. 01.0200.415 는 TV 를 연상시키는 직사각형의 스틸 케이스와 특허받은 “토글” 푸셔, 메탈릭 딥 블루 컬러의 다이얼과 TV 모양의 직사각형 카운터, 경사진 플랜지 링, 그리고 3 개의 링크를 활용한 일체형 스틸 브레이슬릿에 1972 년부터 사용된 새로운 제니스 로고 서명을 더한 디자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제니스: 꿈을 향한 도전.

제니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추구하며 이를 이뤄내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1865년 설립 이후 제니스는 최초의 수직 통합형 스위스 시계 매뉴팩처로 자리 잡았으며, 제니스 시계는 영국해협 횡단 비행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루이 블레리오(Louis Blériot)부터 성층권 자유낙하 기록을 세운 펠릭스 바움가트너(Felix Baumgartner)에 이르기까지 큰 꿈을 꾸며 불가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온 특별한 인물들과 함께해왔습니다. 제니스는 또한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는 드림허스(DREAMHERS) 플랫폼을 마련해 선구적인 여성들의 업적을 기념하고 그들에게 주목합니다.

혁신의 별을 따라 전진하는 제니스는 모든 시계에 인하우스 방식으로 자체 개발 및 제작한 무브먼트를 사용합니다. 제니스는 1969년 세계 최초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칼리버인 엘 프리메로를 출시했으며, 계속해서 0.1 초까지 측정 가능한 Chronomaster 컬렉션과 0.01 초의 정밀성을 갖춘 DEFY 컬렉션을 통해 정밀한 고진동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시간 측정 역량을 드러냈습니다. 혁신은 곧 책임을 의미합니다. 제니스 HORIZ-ON 이니셔티브는 포용성과 다양성, 지속 가능성, 직원의 복리후생이라는 세 가지 헌신을 약속합니다. 제니스는 1865년부터 지금까지 새로운 차원을 향한 열정적인 도전과 함께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나만의 꿈을 향해 손을 뻗을 시간입니다.